

코로나에 지출 느는데... '마스크지수' 빠진 통계청 물가

미세먼지·신종 감염병...필수품된 의약품

최근 뒤늦게 소비자물가 조사항목에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1%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스크가 조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인데 통계가 최근 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최근 사용이 늘어난 마스크를 예비조사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13개월 만에 0%

대 물가를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관리목표치인 2%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 1월 물가에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품은 조사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조사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조사품목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 460개 품목이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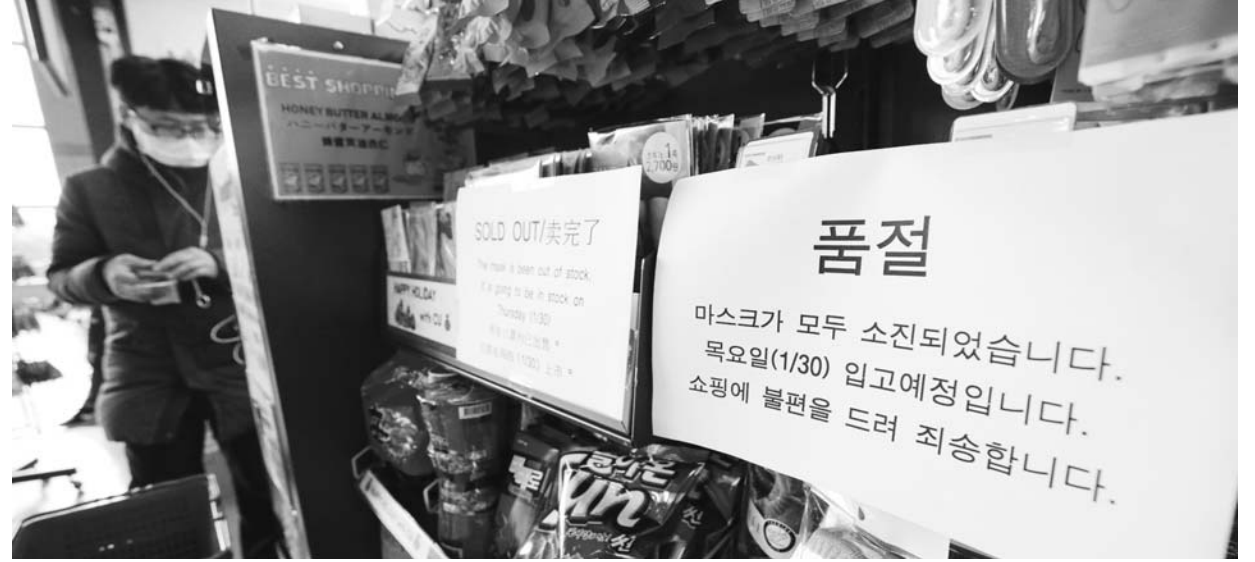
품목은 크게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가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뉜다. 하지만 마스크 등 의약품은 물가조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의 경우 공업제품 분류에 포함돼 있지만 의약품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품목 선정은 가계동향에서 지출을 보고 1만분의 1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며 "마스크는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마스크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도 마스크를 조사품목에 포함해 조사에 들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때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 마스크 매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문에 소비지출이 늘어서 마스크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 문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지

난담부터 예비항목에 추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콕족' 속출...온라인 쇼핑 유입 30%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온라인 쇼핑물 이용 고객이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지난달 27일부터 이 달 2일까지 일주일 간 고객 구매성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 고객의 체류시간도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롯데홈쇼핑은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손세정제', '마스크', '비누' 등 위생 건강 상품 검색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마스크는 한 주 전 대비 주문 건수가 10배 증가하며 검색 키워드 1위를 기록했다. 세제·생수·즉석밥 등의 수요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도 집중되며 가공·건강식품 카테고리에서 74%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살균 기전 및 건강 관련 상품들을 예년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집중 편성한다. 이달 5일 오후 2시40분에는 외부활동으로 쌓인 먼지를 제거해주는 의류관리기 'LG트롬 스타일러'와 '건조기'를 판매한다.

7일 오후 1시40분에는 수돗물을 단시간에 적정 살균 농도의 전해수로 제조해 주는 '바우젠 전해수기'를 판매한다. 독일 유명 기전 브랜드인 '블롬베르크'의 의류건조기, '다이슨'의 가습공기청정기 등 해외 유명 생활가전을 비롯해 '닥터필 필

름형 프로폴리스', '아티키 생로얄젤리 그릭히니', '정관장 홍삼진고' 등 건강식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KF94' 기준 마스크 판매방송을 3일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지난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분 동안 '위케어 황사 마스크' 판매방송을 긴급 편성해 주문수량 약 5000세트 기록하며, 목표 대비 4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덮친 한국차...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차질 우려

감염 방지 위해 출결 연장...내주부터 생산 차질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여파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인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중국 내 업체들의 생산 중단이 계속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신, 유라코퍼레이션,

티에이치엔(THN) 등에서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받고 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차량 각 부위에 전력과 신호를 공급하는 역할이다.

통상적으로 완성차업체들은 와이어링 하니스의 수급이 어렵지 않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통상 1주일 치 재고분을 비축해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품 공급 차

제가 끊긴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출결 연휴를 오는 9일까지 연장하면서 생산을 멈춘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의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3일 "광주공장은 오늘까지 정상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번주까지는 광주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계

속되면서 중국 현지 업체들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 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최악의 경우 생산중단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일단 국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해당 부품을 대체조달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공급되는 물량을 100% 대체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그룹은 가동 중단에 대비해 노조와 실무협의를 열고 정상조업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소형 SUV '셀토스'를 포함해 스포티지, 쏘울 등을 양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포함 7개 차종 '美 2019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생산중단 검토 같은 건 없어"

"국내 회사·동남아 등지로 부품 공급 대체선 다각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4일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공장 생산중단 등과 관련해 특별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주 광주지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국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부품 공급선을 국

내나 동남아 쪽으로 다각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인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중국 내 업체들이 출결 연휴를 연장하면서 공급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이 여파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소형 SUV '셀토스'를 포함해 스포티지, 쏘울, 봉고트럭, 버스 등을

양산하고 있다.

차량 각 부위에 전력과 신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와이어링 하니스는 수급이 어렵지 않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통상 1주일치 재고분만 비축해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품 공급 차

중국정부가 출결 연휴를 오는 9일까지 연장하면서 중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멈춘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의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신, 유라코퍼레이션, 티에이치엔(THN) 등에서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받고 있다.

박봉주 지회장은 "공장 내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물량을 파악 중에 있고 회사 측에서 긴급하게 부품 공급선을 국내 공장으로 확대하고 있어 공장 가동중단 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뉴스1

"비싼 채소 집에서 키워먹자"...웰스, 업계 최초 '공유렌탈'

건강기증 종합브랜드 웰스가 렌탈 업계 최초로 '공유 렌탈' 상품을 선보인다. 정수기 등 기존 주력 렌탈사업과 공유렌탈 사업의 두 트랙 전략으로 렌탈사업 영업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웰스는 공유렌탈 첫 상품으로 식물재배기 '웰스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매일 2만원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채소 모종을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직접 키워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웰스팜 신청시 기기는 무상 제공되고 무농약 채소 모종의 정기 배송과 워싱턴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채소 모종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1년이다.

채소 모종은 4개의 패키지로 구성되며 웰스팜 공유렌탈 서

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종류의 패키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선택한 채소 모종은 2개월마다 집으로 배송되며, 배송시 '월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채소 모종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내에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한다.

이와 함께 2개월 주기로 웰스팜 전문 엔지니어의 '안심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기의 이상 유무



등 기기 점검부터 채소 모종의 성장 관리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뉴스1